

허정 에덴병원 원장, 지역발전 공로 ‘광주시민대상’ 영예

20년간 장학금 11억 기부...의료·봉사·문화 등 헌신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가입...24일 시민의날 시상

광주시는 ‘제38회 광주시 시민대상’ 수상자로 허정 에덴병원 원장 (사진)을 선정했다. 광주시민대상은 광주시 발전과 명예 선양에 크게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1987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38년째를 맞고 있다.

허정 원장이 운영하는 에덴병원은 자연분만문화를 선도해 한국여성민우회가 ‘아름다운 병원’에 선정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했다.

허 원장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재임 때 적십자회비 등 1억5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전국 128회에 이름을 올렸다.

또 광주전남혈액원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 기부금품 모금과 구호활동에 앞장섰다.

허 원장은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전남대학교 발전기금 4억2000만원 등 20년간 약 11억원을 기부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유업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위한 ‘백범 역사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보존정신 함양에 힘썼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초대 부회장, 광주범퇴교 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광주안전문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광주전

남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제38회 광주시 시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시민대상 상패가 수여되며, 예우공간인 ‘시민대상 홍보공간’에 헌액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분야에서 160명의 시민과 9개 단체에게 시민대상과 명예의전당을 시상했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후보자를 시상 하다보니 대상자 발굴 애로와 공적 격차 등의 논란이 제기돼 올해부터는 시민대상과 명예의전당을 하나로 통합해 가장 공적이 뚜렷한 개인 1명에게 ‘광주시민대상’을 포상하기로 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동신대학교는 최근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한전KDN과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ICT 분야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추진”

동신대·한전KDN 융합전공 개설 등 업무협약 체결

동신대학교가 한전KDN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ICT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동신대학교는 최근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한전KDN과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에 착수해 ICT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커리큘럼 마련, 현장실습, 인턴

십 등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 동신대가 추진 중인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 전남도 RISE 시그니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해갈 방침이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공공기관과 대학이 힘을 모아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면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모인면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호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가자”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14일 광주시 5개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촌사랑 우리농산물 꾸러미’ 400개(1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취약계층에 우리농산물 꾸러미 전달

1600만원 상당...5개구 400가구 대상

농협 광주본부는 14일 광주시 5개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촌사랑 우리농산물 꾸러미’ 400개(1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농촌사랑 우리농산물 꾸러미 나눔사업’은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범농협 광주본부 영농지원발대식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광주시 및 5개구와 협의해 나눔 대상을 선정해 진행했다. 꾸러미는 동구 32가구, 서구 72가구, 남구 68가구, 북구 136가구, 광산구 92가구 등 400가구의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농산물 꾸러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2차 합동설명회

산인공 등 일자리 지원정책 소개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홀에서 전남지역 기업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내일일경험 및 일자리 지원정책 제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 운영사업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1부에서는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2부는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정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2차 합동설명회 참여기관은 광주상의를 비롯해 전남도(전남일자리지원정책), 여수고용복지포터

스센터(고용장려금), 여수상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훈련),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전남일자리지원사업 종합안내)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남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며 “이번 설명회로 전남권 지역 기업들이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가 운영 중인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청년들의 일경험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미래내일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홀에서 전남지역 기업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내일일경험 및 일자리 지원정책 제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일경험 사업호보,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설계 컨설팅, 15~34세 미취업 청년 모집,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내 양질의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통한 현장 직무 숙련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PEOPLE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여수해경

200t급 신형 경비정 ‘216정’ 취역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신북항 여수해경 전용부두에서 신형 경비정 ‘216정’의 취역식을 열고 본격적인 해상치안 임무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취역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여수해경 경우회 교문위원 및 여수해양구조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216정은 길이 42m, 폭 7m의 200t급 경비정으로 최고속력 27노트, 최대 700마일(약 1296km)까지 연속 운항이 가능하다. 또한 고속단정(RIB)과 소화포, 소나(음파탐지기) 등 다양한 구난·수색장비를 탑재해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해양사고 대응, 경비 등 다양한 치안임무를 수행해 관할해역을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신형 함정 취역을 계기로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전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최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사랑 100인 + 기부 릴레이’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광양시장 만남실에서는 정인화 시장을 비롯해 이광용 보육재단 이사장, 김희영 보육재단 상임이사, 기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첫 기부자 및 일반 후원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만 원 이상 기탁자 100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캠페인으로 첫 기탁자는 황재우(주)광양기업 대표가 50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릴레이 신평탄을 쏘아 올렸다.

또 진상면태양광발전소경영위원회(위원장 안길봉)가 700만원, 광양스위트엠트네스스어린이집(원장 김현희) 107만원, 광양센트럴차이 어린이집(원장 김소영) 100만원 등 총 907만원의 일반 후원금도 기탁됐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본사방문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게시판

결론

▲류선용(법무부 의료과)·양호정(순천시청 관광과장) 씨의 아들 시형(미래기계기술)군, 김삼진(KT 부장)·이향란씨의 딸 헤빈(순천 평화병원)양=6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길 94 아모르웨딩홀 4층 그랜드볼룸.

알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18일)

쥐

48년생 양년에 가책을 느끼게 된다
60년생 병문만 후 상심하게 될 것
72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84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96년생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토끼

51년생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하다
63년생 과음은 중병을 부르게 되리니 주의
75년생 복잡한 관계로 접어들게 될 것
87년생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
99년생 여행에 있어서 조심

말

54년생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
66년생 집착하지 말고 현 일에 전념하라
78년생 중요한 약속이 취소 될 것
90년생 움직일 때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라

돼지

57년생 생활 변경 안에서 외출이 길하다
69년생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보인다
81년생 약속은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93년생 길거리를 조심해야 안전이 보장

소

49년생 재앙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61년생 줄거움을 줄 수 있는 기운이 보인다
73년생 쫓리고 베이는 것을 주의
85년생 될 수 있으면 나쁘지 말라
97년생 요행심 투기는 금물

송

52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된다
64년생 목직에 부합한다면 이롭다
76년생 뜻밖의 충격을 받고 고민할 수
88년생 사회활동은 혼자서만 할 수 없다

양

55년생 미묘한 갈등이 해소 될 것
67년생 금기가 처리되는 통쾌함이 있다
79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91년생 가든 곳마다 기쁨이 있는 날

개

58년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
70년생 준비해 두어야만 차질이 없다
82년생 부동산 거래는 이뤄지기 어렵다
94년생 늦었다 생각 말고 지금 시작하라

호랑이

50년생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62년생 변동으로 아쉬운 날이 될 것
74년생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것
86년생 뒷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것
98년생 앞장서 일하니 주변의 인정받는 날

뱀

53년생 순조로워서 경사가 겹칠 수도 있다
65년생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77년생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길한 시기
89년생 활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원숭이

56년생 굴치 아픈 일이 생길수 있으니 주의
68년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
80년생 일을 시작하거나 바라지 말라
92년생 데이트 약속 있으니 아외로 나가자

돼지

59년생 헛소문으로 송사까지 확대된다
71년생 사건에 휘말려 일을 놓칠수 있다
83년생 적응하지 못하다면 혼란에 빠진다
95년생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성공